



K-조선, 안전과 성장 둘 다 잡는다

- 산업부, 주요 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사 초청 상생 간담회 개최 -
- 위기극복도 미래 대비도, 산업부 중심으로 민관 원팀으로 나아가기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14(월) 오후 2시,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①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②K-조선 성장을 위한 업계의 주요 건의를 청취하였다.

먼저, 하절기 조선소 작업안전 관련, 때 이른 폭염에 실외작업이 많은 조선소 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주요 조선사들은 중식시간 등 휴식 확대, 선상 휴게실 마련, 살수차 등을 활용한 지열 억제 등 자체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주재한 박동일 국장은 “많은 수주 일감으로 현장이 바쁜 상황이나, 폭염시기 작업인력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중대형 조선사 외에도 소형 조선사 및 기자재사까지 K-조선 생태계 모두가 함께 커나가는 ‘진짜 성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하반기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참석한 주요 기자재사들은 조선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개발 기자재의 탑재이력(track record) 확보,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 국장은 “하반기 중 한-미 조선협력 본격 추진, 조선 소부장 대책 마련, LNG선 이후 먹거리 전략 등 중요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조선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함정 수리(MRO) 및 공급망 협력 등 양국간 협력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통해 기자재사를 포함한 K-조선업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선업계는 그간 ‘16년도 이후 수주절벽, 회복기의 인력난 등 어려운 시기를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업계와 함께 극복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부 중심으로 K-조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다.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담당자	서기관	이디도 (044-203-4331)

1. 행사 목적

- 7~8월 폭염 시기 조선 업계의 작업 현장 안전을 당부
- 하반기 발표 준비 중인 ‘K-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조선-기자재 업계 의견 및 기타 업계 현안 청취

2.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5.7.14(월) 14:00 / 부산 아스티호텔 4층 소회의장
- 참석자
 - 산업부 : 제조산업정책관(주재),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등
 - 업 계 : (조선업계) 대형3사(HD한국조선해양, 한화, 삼성), 중형조선사 등
(기자재업계) 한국·부산·경남기자재조합 등
(관련기관) 조선협회, 중소조선연구원, 조선기자재연구원 등
- 세부 행사 계획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담 당
14:00~14:05('5)	모두 발언	제조산업정책관
14:05~14:15('10)	최근 조선산업 동향 및 하반기 업황 전망	조선협회
14:15~14:55('40)	관련 토론	참석자 전원
14:55~15:00('5)	마무리 발언	제조산업정책관

□ **폭염대응 교육**

- 폭염안전 5대 기본원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대응조치)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현장점검 실시

□ **휴식공간 및 냉각시설**

- 이동식 냉방버스 활용 생산부하·일정 맞춤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
- 현장 내 차광막, 파라솔 및 선박 위 작업자용 선상휴게실 등 마련
- 작업장 지열 억제용 살수차 및 쿨링포그* 등 운영

* 고압으로 분무된 미세한 물입자가 기화하며 주변온도 저감

□ **휴식시간**

- 폭염기 중식시간 확대 운영(30분~1시간 연장)
- 기온 상승 시 작업 중간 휴식시간 연장(1시간에 10분 원칙 → 10분 연장)

< 선상휴게실(HD한조해) >

< 냉방버스(한화오션) >

< 살수차(삼성중공업) >

